

깃싱의 디킨즈론

성 은 애

I

문학의 상품화는 비단 우리 시대의 현상만이 아니며, 또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가 활동하던 19세기 중반이나 조지 깃싱(George Gissing)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의 현상만도 아니었다. 그러한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시작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문학의 상품화와 자본주의적 문학 시장의 형성의 연원은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18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1680년에서 1730년 사이의 기간에 이미 작가들의 출신 계층이 귀족이나 젠트리층에서 전문직이나 중산층으로 바뀌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 독자의 확대와 더불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¹⁾ 흔히 18세기를 직업작가의 탄생기라고 부르는 데서 나타나듯이, 글쓰기가 하나의 생계 수단 혹은 직업으로서 가능해진 이 시기는 바로 문학의 상품화와 나아가서 문학 시장의 자본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이 사적인 후원자(patron)나 자신의 재산 혹은 다른 직업에서 오는 경제적 지원이

1)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1), 258-259.

없는 상태에서 글을 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인쇄술의 발달, 문자 해독률의 증가, 지가(紙價)의 하락, 서적의 대중화, 중산층 독자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내내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데, 근대가 시작된 이래 각 세대의 문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유와 동시에 위기를 사상 초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렇듯 자신들의 상황이 이전 시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또한 근대를 특징짓는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디킨즈는 흔히 이러한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실로 디킨즈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중기의 작가들은 급격하게 확대된 시장과 서적 출판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중성과 예술성의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성과 예술성을 탁월하게 결합한 작가라고 평가받는 디킨즈를 비롯한 극소수의 예외적인 작가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작품으로 대중적 인기와 명성을 얻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은 싸구려 통속 소설이라는 이유로 후대의 평자들에게 외면당했다.²⁾ 뿐만 아니라 당시 대학 교육을 받은 신사들은 작가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중산층 이하 출신 작가들의 상업적 의도를 경멸하면서 문학이란 고급한 교육을 받은 세련된 천재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던 한편, 제2의 디킨즈나

2) 아직까지도 빅토리아조에 출간된 소설이나 작가들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빅토리아조 동안 약 5만편의 소설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한 소설가가 평균 15편 가량의 소설을 썼다고 가정하면 이 시기 작가의 수는 3,300여명이 된다. 그러나 그중 인적 사항이 알려진 작가는 1,200여명에 불과하며 현재 남아서 입수가 가능한 작품은 많이 잡아야 7,000여편에 불과하다. 최근의 통계에 관해서는 John Sutherland, *Victorian Fiction: Writers, Publishers, Readers* (London: Macmillan, 1995), 151-153.

색커리(Thackeray)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이 저널에 글을 실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채무자 감옥행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특히 디킨즈나 색커리처럼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작가들, 그중에서도 뚜렷하게 할 말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재산이나 사적인 수입도 없으며,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중하류층 출신의 작가들은 자구책으로 일종의 보헤미안주의(Bohemianism)에 기대는 현상도 나타난다.³⁾

후대의 평자들은 빅토리아조의 소설을 논할 때 흔히 디킨즈의 '천재성'이나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도덕적 감수성', 색커리의 '풍자',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예술성' 등을 즐겨 논하지만 정작 디킨즈가 문학기금(Literary Fun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해야 할 정도로⁴⁾ 수많은 무명작가들이 그들 뒤에 숨어있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단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작가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이로 인한 그들 특유의 문화는 세기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깃싱은 상업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작가였으면서도 『뉴 그럽 가』(*New Grub Street*) 등에서 당대 문단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화상을 성공한 작가의 시각이 아니라 정상은 구름 속에 가려져 까마득해 보이는 문단 밑바닥의 시각에서 그려내고자 했다.

깃싱이 활동하던 1880년대에서 1890년대 사이의 기간은 흔히 구텐베르그 이래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문단에 가장 큰 변화를

3) Nigel Cross, *The Common Writer: Life in the Nineteenth-Century Grub Street* (Cambridge: Cambridge UP, 1985), 93-95.

4) 디킨즈는 1849년경부터 1850년대 초반까지 문학기금의 일에 관여하였고 1850년에는 문학예술조합(The Guild of Literature and Art)을 설립하는데, 이는 직업적인 작가들에게 연금(월급여)과 주택을 제공하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중산층 전문작가와 상류층 아마추어 문인들간의 갈등, 등 문제에 부딪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Cross, 32-35.

가져온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일례로 1895년을 기점으로 하여 19세기의 지배적인 출판 양식이었던 3권 1질 소설이 완전히 소멸되는데, 이는 비단 한 가지 출판 양식이 그 생명을 다했다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19세기적 출판 방식, 혹은 출판 문화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깃싱의 시대는 출판과 저널리즘이 일대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던 시기, 나아가서 19세기적 문단의 종말을 목도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최초의 신디케이션 출현, 대중 언론의 급격한 팽창, 작가 협회(Society of Authors)의 출현 등 현대 대중 출판 문화를 예고하는 몇가지 사건들을 목도하게 되며, 또한 작품 자체에 있어서도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중기 빅토리아의 도덕적 제약이나 사회적 검열이 와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영문학사에 있어서 18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친 시기는 문학의 자본주의로의 편입 과정에 중요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 시기에 문단의 바닥에서 상층까지 끌고루 경험한 깃싱의 이력과 그의 고뇌는 자본주의적 문학 시장에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작가의 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깃싱에게 디킨즈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디킨즈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당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사그라든 적이 없었다. 깃싱의 시대에 디킨즈는 무엇보다도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문인의 대명사였다. 또한 깃싱 이후에 세대에게 디킨즈는 성공한 소설가의 전형이 되었고, 수많은 비평적 논의의 결과 빅토리아조 당대의 대중들에게 순진무구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낱 유머리스트에서 셰익스피어의 뒤를 이어 대중성과 예술성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았던 위대한 작가로 격상되었다. 자신의 예술을 상품으로 내세워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고 또한 자신의 작품이 고전으로 남을 것까지

도 기대해야 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디킨즈의 이러한 성취는 동경의 대상이지만 실제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깃싱을 비롯한 후대의 작가나 비평가들은 하나같이 그같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행복한 일치가 디킨즈를 둘러싼 아주 특수한 정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미 디킨즈의 시대에서부터 그러한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디킨즈 바로 다음 세대인 깃싱에게 디킨즈는 돌아갈 수 없는 황금시대와 동의어였다.

디킨즈의 다음 세대인 조지 깃싱은 누구보다도 문단의 새로운 경향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따라서 그에게 디킨즈는 디디고 넘어서야 할 언덕이며 화두였다. 이 글에서는 깃싱의 디킨즈론을 중심으로 깃싱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의 작가들에게 닥친 예술성과 대중성, 현실성의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깃싱이나 그의 세대가 디킨즈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디킨즈의 영향력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다시 말해서 디킨즈에게서 보인 대중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발달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 된다.

II

깃싱의 『찰스 디킨즈: 비평적 연구』(*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 (1898)는 깃싱이 말년에 착수한 몇가지 새로운 기획 중 하나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소설가로서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이 출간된 덕분에 깃싱은 메수엔(Methuen) 출판사의 요청으로 디킨즈 작품의 로체스터판

(Rochester Edition) 서문을 썼고 이때 쓰여진 9편의 서문은 후에 다시 『불멸의 디킨즈』(*The Immortal Dickens*)로 모아져서 출판되었다. 뒤이어 깃싱은 건강상으로 이미 불길한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1903년에 채프먼 앤 홀(Chapman & Hall)의 제의로 존 포스터(John Forster)의 디킨즈 전기를 요약 정리해서 출판하기도 했다. 깃싱이 4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고, 길지 않은 활동기간중 30여권의 장-단편 소설을 썼던 점, 그리고 소설 이외에 다른 장르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보아 디킨즈에 대한 이런 정도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킨즈에 대한 깃싱의 관심은 비단 성공적인 작가에 대한 동경이나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흠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깃싱의 작품은 H.G. 웰즈(Wells)나 아놀드 베넷(Arnold Bennett) 등 같은 세대의 다른 작가들보다도 디킨즈에게 더 가깝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⁵⁾ 그만큼 깃싱은 비록 활동시기로 보면 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빅토리아조 소설의 전통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가령 그의 소설은 대부분 3권 1질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간되었으며, 후에 1권짜리 소설에 손을 대기는 했으나 전통적인 방식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또한 깃싱에게 디킨즈는 어린시절 그의 문학적 감수성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작가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력을 투사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감정적 투사에 대한 하나의 예로 여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여보자. 『찰스 디킨즈: 비평적 연구』의 7장 “여성과 아

5) Gillan Tindall, *The Born Exile: George Gissing* (London: Temple Smith, 1974), 20.

동”(Women and Children)에서 깃싱은 여성 독자들에게 디킨즈가 별로 인기가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디킨즈 소설에 나오는 여성인물들 중 남성의 삶에 고통의 원천이 되는 여성인물들을 열거한다. 이때 깃싱은 마치 소설 속의 여성 인물이 실제의 인물인 것처럼 그들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감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특히 『막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에 나오는 가저리 부인(Mrs Gargery)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심성이 부드러운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게다가 그 남자가 육체적으로 가장 강건한 남자라는 사실은 그녀를 엄청나게 만족시킨다. 되는대로 툭 쳐도 그녀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인 그가 그녀가 퍼붓는 혹독하게 모욕적인 언사에 아무 대답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짓밟는 기쁨이란! 또한 그녀에게 아직 어린아이인, 그래서 뜰 때마다 학대할 수 있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그 덩치 크고 순한 남자, 즉 그녀의 남편에게 가슴아프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 아이를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즐거운 일이다. 당신은 디킨즈가 이러한 못된 성질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 영소설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종류의 이유 이외엔. 아무도 그런 여자들이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추측할 없다는 것이 그들의 특이함이기도 하다. 동물의 본성이랄까 — 이밖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⁶⁾

틴달(Tindall)은 디킨즈에 관한 이 책을 쓸 당시에 깃싱이 에디스 언더우드(Edith Underwood)와의 불행한 결혼을 청산하고 난 직후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⁷⁾ 다시 말해 결혼생활에 대한 환멸

6) George Gissing, *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London, Blackie & Son, 1903), 142.

7) Tindall, 218.

과 여성에 대한 불신, 특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적인 세련미를 갖추지 못한 여성에 대한 깃싱의 경멸섞인 편견이 디킨즈의 작품에 투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의 인용과 또 뒤이어 가져리 부인의 죽음에 내심 패재를 부르는 듯한 부분을 보면 디킨즈 소설 속의 여성에 대한 깃싱의 평가가 지극히 개인적인 어조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장은 다른 장과 달리 여성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특히 여성이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예의 나열로 되어있어 거의 비평가로서의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해야할 지경이다. 깃싱의 작품 속에서도 결혼은 갈등과 폭력, 학대로 가득찬 불행한 것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행복한 경우로 극단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깃싱 자신의 불행하고 복잡했던 결혼생활과 무관하지 않음은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⁸⁾ 깃싱은 결혼생활도 인생 자체가 그러하듯 일방적으로 행복하거나 전적으로 불행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균형잡힌 인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결혼도 배우자(주로 여성)의 불안정한 심성 때문에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와 비현실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두 극단 사이를 혼란스럽게 오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도 그의 특이하고도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연관된다는 것이다.⁹⁾ 그런 면에서 디킨즈의 여성 인물들을 자신의 처지와 빗대어 지극히 감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깃싱에게 있어서 디킨즈가 단지 비평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의 삶 자체를 빗대어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깃싱의 여성관을 언급하는 것이 그의 기이한

8) Lloyd Fernando, "New Women" in the Late Victorian Novel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77), 109-110.

9) Tindall, 207.

여성관을 문제삼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의 교육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받지 못한 여성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깃싱의 이중적인 면모가 디킨즈 작품 속의 여성 인물들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디킨즈에 대한 깃싱의 논의는 디킨즈의 작품을 빌어 자신의 예술적, 개인적 고뇌를 간접적으로 토로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디킨즈에 대한 비평에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투사하는 현상은 다른 문제에서도 나타나는데, 대개 깃싱의 개인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곧 세기말의 소설가들이 갖는 전형적인 고민이므로 깃싱의 디킨즈론은 깃싱의 시대와 디킨즈의 시대를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III

깃싱의 디킨즈론이 지닌 첫번째 특징은 우선 디킨즈를 빅토리아조의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그의 위치를 당대의 계급구조와 연관시켜보았다는 점이다. 깃싱의 디킨즈론이 디킨즈 사후 사반세기 정도 경과한 뒤에 쓰여졌음을 감안하면, 이는 깃싱의 저서가 동시대인으로서 디킨즈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흠모하고 숭상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정서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디킨즈와 그의 시대를 볼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본격적인 디킨즈론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깃싱은 디킨즈가 프롤레타리아에서 겨우 벗어난 계층 출신으로 말년에는 갯즈힐(Gadshill)에 저택을 소유한 신사로 살았지만, 자신이 속한 중산계급에 대한 비판을 늦추지 않았으며 그의 사회비판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계급정서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¹⁰⁾ 또한

그는 구빈법을 비롯하여 디킨즈에게 영향을 미친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듯 깃싱이 빅토리아조의 역사적 상황, 특히 계급의 문제와 디킨즈의 작품을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디킨즈에 대한 가장 흔한 불평, 즉 디킨즈의 작품에서 사회적 배경의 어떤 측면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나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이하게 과장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디킨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깃싱의 의도를 잘 드러내준다. 디킨즈의 인물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고보다는 과장되고 그로테스크한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비판은 디킨즈 당대의 월터 배جت(Walter Bagehot)부터 깃싱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헨리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¹¹⁾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대해 깃싱은 디킨즈가 주변의 사회적 조건들 못지 않게 각 계층의 사람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판단한다(16). 이는 당대 작가들에게 제기되었던 소설에 있어서의 사실성 문제, 문학작품에서 ‘사실적’이라거나 ‘현실적’ 혹은 ‘신빙성’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흔히 지적되는 디킨즈적 인물의 기이함과 과장에 대해서 깃싱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옹호한다.

이러한 기이함,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런 기이함을 디킨즈는 특히 눈여겨보았다. 그에게는 이러한 자료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이라면 그는 획일화된 대중 사이에서 그러한 개성들을 찾아 헤매야 할 것이다. 요사이 대중들이란 옷만 다르게 입었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10) George Gissing, *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 (London: Blackie & Son, 1903), 8.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 중 괄호안에 면수만 표시함.

11) Steven Connor ed. *Charles Dickens* (London: Longman, 1996), 2-4.

그의 책이 인간본성에 대해 그렇게도 야단스럽고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디킨즈는 그의 시대와 세대의 진정한 연대기 기록자이다. (17-18)

깃싱은 디킨즈의 시대에서 자신의 시대로 넘어오는 동안의 문화적 변화가 결코 작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법 개혁이 이루어진 1870년대를 지나면서 대중들의 정서나 계급간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디킨즈 작품에서 느껴지는 과장이나 기이함은 깃싱 자신의 시대가 얼마나 획일화되고 무미건조해진 시대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깃싱은 각자 처한 상황과 시대적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서 생소하게 보일 뿐이지 디킨즈야말로 자신의 세대를 가장 충실하게 그려낸 작가라고 옹호한다. 깃싱은 심지어 당대 작가들에 비해 디킨즈가 자연주의(Naturalism) — 디킨즈 스스로 이 용어를 염두에 두진 못했지만 — 로 향하여 한발 더 나아간 작가라고 평한다(74).

이는 또한 자신의 작품에서 노동계급이 디킨즈의 작품에서와 다른 양상으로 그려진 것에 대한 일종의 변론이기도 하다. 디킨즈의 작품에서 민중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선한 마음씨의 소유자이며 소설에 활기를 불어넣는 매력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반면, 깃싱의 민중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의 힘에 짓눌려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깃싱의 소설에서 한 인물의 개인사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의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하고 가차없는 어떤 압력에 밀려 정처없이 떠밀려간다. 깃싱 작품의 많은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는 디킨즈의 인물을 연상시키지만, 디킨즈의 경우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가난이라는 상황이 그들의 성격 형성에 항

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¹²⁾ 깃싱은 처음에는 노동계급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고작이고 그 속에서 어떤 세련된 감수성이나 교양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그의 공격이 노동계급을 그렇게 만든 상황이나 사회제도로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투박하고 상상력이나 예술적 감각이 없는 노동계급의 성격 자체로 향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 면에서 깃싱의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환경과 인물 간의 인과관계를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묘사한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디킨즈로 대표되는 빅토리아조 풍의 인물에 대한 일종의 회롱, 혹은 패러디를 보여준다.

오웰(Orwell)에 따르면 깃싱은 노동계급을 야만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굳이 위장하려하지 않는다고 한다.¹³⁾ 물론 오웰의 판단은 깃싱의 일면만을 지적한 것이다. 깃싱은 스스로가 당대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절실히 경험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계급의 상황에 대한 공감에서 일련의 노동계급 소설을 써낸 바 있다. 깃싱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난 노동계급에 대한 공감과 혐오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딜레마와 정면으로 대결해야만 했다는 점이 깃싱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반면 디킨즈는 깃싱의 분석대로 시

12) John Goode, "George Gissing's *The Nether World*", in David Howard, John Lucas & John Goode eds. *Tradition and Tolerance in Nineteenth-Century Fiction* (London: RKP, 1966), 223-224.

13) George Orwell, "George Gissing", in Pierre Coustillas ed., *Collected Articles on George Gissing* (London: Frank Cass & Co., 1968), 55-56.

14) P.J. Keating, *The Working Classes in Victorian Fiction* (London: RKP,

대상의 차이에 의해서건 아니면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건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정면대결을 한다는 인상은 주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태도 차이에 대해 깃싱은 디킨즈와 자신의 '사실주의적' 원칙상결정적인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디킨즈의 개성있는 노동계급이 '사실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굳이 리얼리스트로서의 디킨즈의 명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태도를 지녔지만 도리어 디킨즈에게 매혹된 깃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깃싱은 디킨즈의 인물들은 디킨즈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적이며 상황이 달라진 자신의 시대에는 그러한 '사실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IV

그러나 깃싱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에도 불구하고 디킨즈의 소설 구성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디킨즈가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기술이나 결말에 관해서 깃싱은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그는 디킨즈가 너무나 자주 기이하고 신빙성없는 사건들에 이끌리고 있으며, 사건의 필연성보다는 특정한 사건 자체가 주는 '효과(effect)'에 너무 기대고 있다고 말한다. 즉 무대적인 감수성으로 구성을 하다보니 상황의 통일성과 필연성보다는 일련의 '효과'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사건들간의 인과관계나 신빙성은 무시된다는 것이다. 깃

심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극장, 혹은 연극에 대한 디킨즈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무대에 대한 디킨즈의 애정은 확실히 작가로서나 개인으로서 불행이었다고 단정짓는다(45).

그러나 연극에 대한 디킨즈의 태도를 곧바로 소설 구성의 억지스러움과 연관시키는 것 또한 깃싱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또 하나의 과장이다. 디킨즈가 연극이 대중의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스스로 공연에 참가하거나 극장 건립 기금을 모으기 위한 연설을 여러차례 하는 등, 연극 공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¹⁵⁾ 그러나 디킨즈가 당대의 연극에 대해 결코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커다란 유산』(*Great Expectations*)에서 디킨즈는 워슬(Wopsle)의 연극공연을 보러가는 주인공 피프(Pip)의 입을 빌어 워슬의 '성공'이 드라마의 부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라마의 퇴락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⁶⁾ 디킨즈는 당시 연극이 쇠퇴한 원인으로 잘못된 정책, 배우들의 질 저하, 관습에 의존하는 버릇, 관중들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이렇듯 당시의 드라마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과 비교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개탄하기도 했다.¹⁷⁾ 그러니까 디킨즈는 당대 런던 시민의 오락 수준, 나아가서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의 수준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대중극의 요소

15) 1839년에 디킨즈는 배우 머크리디(Macready)를 위한 만찬에서 연설한 것을 필두로 1846년에서 1858년까지 매년 빼놓지 않고 극장기금을 위한 연설을 했다. K.J. Fielding ed., *The Speeches of Charles Dickens* (Oxford: Clarendon Press, 1960) 참조.

16)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395.

17) Charles Dickens & R.H. Horne, "Shakespeare and Newgate", in Harry Stone ed. *The Uncollected Writings of Charles Dickens: Household Words 1850-1859*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68), 343-344.

를 작품에 도입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디킨즈에 대한 깃싱의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겨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디킨즈가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향해 있다. 디킨즈의 구성에 비해 깃싱이 쓴 소설의 구성원칙을 살펴보면 인물이나 사건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식이 결여된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깃싱의 작품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정체성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공에 뜬 것처럼 불안정하게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¹⁸⁾ 이러한 불균형에서 오는 갇힌 느낌, 현실이 앞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덫’이라는 느낌은 깃싱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으로서, 디킨즈의 후기작에서 일부 드러나 보이는 비판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깃싱에게서 이러한 분위기가 강화되고 서사 구성의 기본 틀에도 반영되는 것은 극적 구성에 대한 깃싱의 무관심, 혹은 비판적 태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개인적인 이유를 찾자면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 좀더 축소해서 말하자면 깃싱 자신의 지식인적인 고급 취미, 특히 고전에 대한 강박적인 동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깃싱이 디킨즈와 달리 대학에서 고전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우발적인 도난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에 와서 습작기를 거치면서 디킨즈와 달리 고전에 교습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¹⁹⁾ 특히 초기의 소설에서는 풍경이나 인물의 묘사에 고전에서 따온 비

18) Adrian Poole, *Gissing in Context* (London: Macmillan, 1975), 3.

19) Michael Collie, *George Gissing: A Biography* (Folkstone: Wm Dawson & Sons, 1977), 24-39.

유가 자주 등장하고, 빈민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나 라틴어 단어들도 종종 눈에 띄기도 해서 깃싱의 문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또한 공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옛날 것에 대한 모호한 향수와 아마 추어적인 탐닉은 깃싱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적인 상황설정을 해명하는 주요한 단서로 거론된다.²⁰⁾

깃싱의 교양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소설의 구성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깃싱의 소설들이 대부분 교양을 갖춘 학자풍의 주인공과 척박한 주변환경 간의 갈등, 다시 말해서 고전 교육을 받은 깃싱 자신이 상업주의적 문단에 뛰어들어 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기초로 한 변주곡이라는 사실이다.²¹⁾ 『뉴 그럽가』의 비핀(Biffen)이나 리어든(Reardon)의 학문적 소양은 곧장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밀베인(Milvain)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매춘부처럼 팔아넘김으로써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머쥐게 된다. 심지어 빈민가의 인물들을 주로 다룬 1880년대의 작품에서도 노동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세련되었거나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인물이 세상의 무자비한 논리와 무식한 주변 사람들의 몰이해에 놀려 어떻게 재능을 낭비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가가 깃싱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물과 상황과의 대립은 언제나 승패가 미리 정해져있는 싸움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인물들간의 극적인 대립이나 갈등, 특정 장면의 극적인 효과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며 오히려 그 인물의 몰락과 절망적인 내면세계, 서서히 다가오는 실패의 과정을 냉철하게 기

20) John Carey, *The Intellectuals and the Masses: Pride and Prejudice among the Literary Intelligentsia, 1880-1939* (London: Faber & Faber, 1992), 104.

21) Samuel Vogt Gapp, "Influence of the Classics on Gissing's Novels of Modern Life," in P. Coustillas, ed. 85.

록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가 된다. 이때 작가의 공감은 항상 세련된 감수성과 재능을 갖춘 인물에게로 가 있고, 작가의 의무는 그가 처한 상황의 역설과 예정된 실패를 실감나게, 그러나 감상을 배제한 채로 그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깃싱의 작품은 디킨즈의 소설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플롯과 수많은 갈등,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좌절과 실패라는 단일한 극점을 향해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²²⁾ 즉, 깃싱의 작품에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혹은 어떤 특정한 사회세력과 다른 세력간의 극적인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세계 전체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절망적인 싸움이 작품의 모티프가 된다. 이러한 의식은 곧 극적인 구성에 대한 적대감과 이어지게 된다. 디킨즈의 소설이 여러 층의 사회적 힘들 간의 연관과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라면 깃싱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 디킨즈의 소설에서 대중극의 요소나 멜로드라마적 장치를 동원한 복잡한 플롯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촉매에 해당하지만, 그런 연관관계보다는 선한 의도를 가진 한 개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상'과의 일방적인 싸움에 더 관심이 있는 깃싱의 눈에 그러한 장치들은 한낱 통속적인 관심에 영합하는 것을 보일 뿐이다.

V

결국 이러한 구도의 차이는 디킨즈와 깃싱의 시대적 차이, 특히 소설 자체내의 변화와도 직결된 것이다. 소설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경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1883년에 출

22) David Gryll, *The Paradox of Gissing* (London: Allen & Unwin, 1986), 1.

라(Zola)의 소설이 최초로 영역되고, 그 뒤로 헨리 비저텔리(Henry Vizetelly)가 졸라 소설의 번역 출간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²³⁾ 그러나 자연주의의 영국 유입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프리어슨(Frierson)은 당시 프랑스 소설의 '악영향'을 비판하는 문단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비평가들은 자연주의를 하나의 사회철학으로서 반대했다. 자연주의는 결정론적이므로, 환멸을 가져다 주고 사기를 꺾는다는 것이다. 또 자연주의는 분석적이므로 사람들을 고양시키거나 영감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로 그들은 프랑스인들의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 반대했다. 프랑스 소설은 점잖지 못하고 추잡하며 불순하다는 것이다.²⁴⁾

『나나』(Nana) 등 졸라의 '음탕한' 작품을 출판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비저텔리의 재판과정은 문단의 화제가 되었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조지 무어(George Moore) 등을 비롯한 당대 유명문인들이 그의 석방운동을 폈을 정도였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주의가 영소설의 전통에 확연히 수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1893년 졸라가 영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적어도 공공연한 비난은 거의 사라지고 심지어 자연주의적 경향에 공감하는 새로운 흐름이 분명하게 자리잡게 되는데, 깃싱도 이러한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깃싱이 자연주의를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자연주의는 가령 디킨즈 시대에 정착된 영소설의 관행을 비판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깃싱같은 작가에게 하나의 방법론적 전제가 되었던 것이

23) Keating, 126-127.

24) William C. Frierson, "The English Controversy over Realism in Fiction, 1885-1895", *PMLA* XLII June 1968. 538.

사실이다. 또한 성문제나 빈민가의 삶 등 그 전까지 기피되어오던 소재들을 과감히 다루었다는 면에서 작가와 독자들의 태도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 자연주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깃싱은 당대의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자인 졸라보다는 디킨즈를 더 숭배했다. 깃싱이 『새벽의 일꾼들』(*Workers in the Dawn*)을 쓸무렵까지도 깃싱은 졸라의 작품을 읽은 바 없으며, 성문제 등을 기존의 작가들이 꺼리던 소재들을 더 자유스럽게 다룬다든가, 감상주의를 배제하는 등의 부수적인 문제 이외에 깃싱이 자연주의를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매혹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키팅(Keating)은 깃싱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였다기보다는 사실주의와 이상주의 사이를 왕래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런 면에서 졸라보다는 킹즐리(Kingsley)에 가깝다고 말한다.²⁵⁾ 깃싱 자신은 동시대의 프랑스 자연주의자들보다는 디킨즈를 비롯한 빅토리아조 중기 작가들과의 연속성을 더 염두에 두는 편이었고, 따라서 깃싱에게 있어서 디킨즈는 리얼리즘의 전범으로서 계승하고 극복해야 할 주된 대상이었던 것이다.

디킨즈에 대한 깃싱의 매혹과 반감이라는 복잡한 감정은 오히려 좁은 의미의 자연주의보다는 광범위한 의미의 '리얼리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깃싱에게 있어서 디킨즈는 영국적인 리얼리즘의 최고봉을 의미했으나, 그 리얼리즘의 성격이 가령 발자크(Balzac)나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 도데(Daudet) 등의 리얼리즘과 성격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깃싱에게 리얼리스트란 '타협없는 방식을 지닌 사람,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주건 고통을 주건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217)이라는 의미이

25) Keating, 137.

다. 그런데 예컨대 발자크의 작품이 ‘실제 삶에 대한 가차없는 연구’(216)인 반면, 디킨즈는 삶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관행과 법칙에 따라 선택되고 각색된 삶, 즉 ‘그가 선호하는대로의 세계’(the world as he prefers it)(217)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디킨즈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깃싱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발자크가 세상에 대해 씩씩한 냉소를 지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킨즈에게는 세상에 대해 낙관할 권리가 있으며,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예술’의 문제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17).

‘리얼리즘’의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스러운 진술은 깃싱의 디킨즈론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발견된다. 한편으로 깃싱은 디킨즈가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대 사회상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위대한 리얼리스트이며, 세계의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난 관찰력을 지녔다(193-194)고 선언한다. 그러나 곧이어 깃싱은 발자크나 도스토예프스키 등에 비하면 오히려 디킨즈가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덮어서 현실을 각색하는 쪽에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나 디킨즈가 발자크나 도스토예프스키보다 리얼리스트로서는 한 차원 뒤진다고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딱히 깃싱 자신이 일방적으로 발자크류의 리얼리즘을 지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깃싱 소설의 많은 인물들은 디킨즈적인 인물을 의식하고 그려낸 것이며, 격양된 감정의 분출이나 복잡한 플롯, 멜로드라마적인 상황설정도 디킨즈가 즐겨 사용했던 대중소설적 요소와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리얼리즘’의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과 깃싱 자신의 애매한 태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는 리얼리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과 작가가 속해있는 문단의 자본주의 시장 원

리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딜레마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작가가 독서대중의 취향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본 그대로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그려내어 독자들의 비위를 거슬릴 경우, 그 작가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깃싱의 경우 이것이 매우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깃싱 자신은 야심찬 데뷔작 『새벽의 일꾼들』과 『무계급』(*The Unclassed*)의 상업적 실패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폐해를 풍자한 『군중』(*Demos*)이 당대 사회주의 운동에 위협을 느끼던 중산층 독자들의 심리와 맞아 떨어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오랜 무명작가 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²⁶⁾ 『군중』은 어떤 면에서는 혁명의 전조를 예감한 중산층의 불안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당대의 사회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사회가 결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그들이 그러한 기획을 수행할 자질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신랄하게 풍자하여 중산층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깃싱의 풍자적 묘사는 당대 사회주의 운동에 실재하던 분열의 조짐과 혼란상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기도 했다.²⁷⁾ 다시말해 『군중』은 그다지 빼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깃싱 나름대로 독서 대중의 계급적 성향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화해시키고자 했던 결과 나온 작품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딜레마는 디킨즈의 유머를 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깃싱은 디킨즈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 그의 유머라는

26) 『군중』과 당대 사회주의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John Goode, "Gissing, Morris and English Socialism", *Victorian Studies*, xii. 2. Dec. 1968. 특히 205-208 참조.

27) Goode, 220.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소설에서 유머를 빼놓는다면 디킨즈가 누리는 대중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웃음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166). 그러나 깃싱은 종종 이러한 유머가 소극(farce)이나 과도한 과장과 반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디킨즈가 대중의 반응을 너무 의식한 결과이며, 종종 이러한 유머가 삶의 쓰라린 진실을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69). 깃싱은 디킨즈의 유머를 디킨즈 소설의 정수로 간주하지만 그것이 삶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도구라기보다는 테니슨(Tennyson)과 더불어 '영국적 감수성'을 가장 진하게 드러낸 증거로 본다. 다시 말해서 디킨즈의 유머는 영국 사회의 모습을 가장 따뜻하고 명랑하게 각색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들[디킨즈와 테니슨 — 역자]은 영국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섬나라적인 어조를 강력하게 울려주지는 못한다. 테니슨의 걸출한 능력 안에는 유머도 없지 않다. 유머는 가장 친밀하게 국민적인 의미를 지니는 주제에 발휘되며, 그가 묘사한 북부지방의 농부는 테니슨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 자신이 바로 유머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디킨즈는 그의 나라를 생각할 때면 항상 환한 미소를 짓는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또한 앞으로의 우리 섬나라 사람들 역시 그러할 것이다.(184)

이러한 평가는 한편으로는 영국적 감수성을 가장 보기좋은 형태로 드러내주고 있는 디킨즈에 대한 존경과 찬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깃싱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리얼리즘의 원칙, 다시 말해 읽는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더라도 개의치 않고

사실을 보이는 그대로 말한다는 원칙에 디킨즈가 다소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깃싱은 디킨즈의 매력을 이해하고 동경하면서도 디킨즈가 기본적으로는 중산층 독자들을 의식하여 삶을 자신이, 혹은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각색해서 보여주는 데에 치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은 깃싱이 디킨즈를 바라보는 일관된 기조인 동시에, 자신의 딜레마를 염두에 둔 착잡한 태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깃싱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디킨즈의 미덕이 최고조로 발휘된 작품은 초기작이나 크리스마스 단편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깃싱은 버나드 쇼(Bernard Shaw)가 디킨즈의 후기작에 나타난 진지한 사회비판을 높이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기작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꼬마 도릿(Little Dorrit)』 등을 언급하면서도 깃싱은 이 작품의 사회비판적 측면보다는 유머와 페이스스의 배합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초기작보다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며 대중의 반응에 쉽게 타협하지 않은, 다시 말해 깃싱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리얼리스트의 상에 더욱 근접하는 후기작에 대한 깃싱의 평가가 인색한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는 역시 디킨즈의 말년이 지나치게 대중낭송에 바쳐졌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말년의 디킨즈가 위대한 소설가의 길 보다는 상업주의적 의도에 편승하는 일종의 대중연예인(public entertainer)이 되었다고 서둘러 판단해버린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VI

이렇게 살펴보면 디킨즈에 대한 깃싱의 판단은 비평서라는 객관적인 외피에도 불구하고, 역시 깃싱 자신의 갈등, 즉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대중적 인기와 리얼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각색'된 디킨즈의 이미지에 가깝다. 또한 그러한 착잡함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스트로서의 디킨즈에 대한 불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가장 영국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이고 동시에 예술가로서 탁월한 디킨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은 깃싱의 시대에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행복한 결합이 이루어졌던 지난 세대에 대한 향수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19세기 후반들어서 사람들의 체험은 점점 도시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데 반해 이 시기 주요 작가들의 소설은 농촌적인 것이 많아져, 디킨즈 시대에 나타난 도시 민중 문화의 창조적 잠재력이 고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²⁸⁾ 조지 엘리엇이나 토마스 하디 등이 주로 조그만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 몰두했던 반면 깃싱의 경우 도시의 경험에 대해 워즈워스, 디킨즈, 하디 등이 갖고있던 여러 가지 유형의 반응과 태도를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깃싱이나 웰스가 어떤 면에서는 디킨즈의 전통을 더 직접적으로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깃싱이 자신의 딜레마를 투영해볼 대상으로 디킨즈를 고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깃싱이 자신의 딜레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디킨즈가 그 나름으로 힘겹게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이나 디킨즈의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되고 나아가 디킨즈의 시대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장미빛으로 채색하여 비평서로서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면서도, 결국 비평가가 지녀야 할 객관적인 자세를 허물어뜨리는 일

28) Raymond Williams,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3), 155-158.

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다. 이미 디킨즈의 세대에서도 전반적인 자본주의화, 상업화의 흐름에 대해 개인의 자족적인 내면 세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혹은 예술가로서의 개인적인 성실성이나 믿음과 외부 세계의 상업적 경향을 어떻게 화해 혹은 격리시킬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디킨즈의 소설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거센 물결에 대한 디킨즈의 반발에서 나온 것이지만, 가정이 일종의 피난처로 제시되면서도 동시에 안락한 가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유통구조 속에 편입됨을 의미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평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²⁹⁾ 그러나 깃싱의 디킨즈론에는 이러한 디킨즈 특유의 딜레마가 포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깃싱의 디킨즈론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디킨즈의 바로 다음 세대 작가로서 디킨즈의 명성과 성취를 계승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나 특유의 지식인적이고 귀족적인 취향 때문에, 혹은 개인의 천재성만으로는 더 이상 극복하기 힘든 문단의 상업적 경향 때문에 디킨즈의 성취에 크게 못 미칠 수밖에 없었던 깃싱 자신의 고민과 열망의 투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깃싱의 디킨즈론에서 평론가로서의 깃싱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디킨즈의 뒤를 잇는 도시의 작가로서 깃싱이 처한 딜레마를 디킨즈의 이미지를 빌어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29) 비슷한 논지를 가진 것 중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Andrew H. Miller, *Novel behind Glass: Commodity Culture and Victorian 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10-11.

Bibliography

- Brake, Laurel et. als. (eds.) *Investigating Victorian Journalism*. London: Macmillan, 1990.
- Carey, John. *The Intellectuals and the Masses: Pride and Prejudice among the Literary Intelligentsia, 1880-1939*. London: Faber & Faber, 1992.
- Collie, Michael. *George Gissing: A Biography*. Folkstone: Wm Dawson & Sons, 1977.
- Connor, Steven. (ed.) *Charles Dickens*. London: Longman, 1996.
- Coustillas, Pierre. (ed.) *Collected Articles on George Gissing*. London: Frank Cass & Co., 1968.
- Criag, David. *The Real Foundations: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London: Chatto & Windus. 1973.
- Cross, Nigel. *The Common Writer: Life in Nineteenth-Century Grub Street*. Cambridge: Cambridge Up, 1985.
- Dickens, Charles. *Great Expectatio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 Fernando, Lloyd. *"New Women" in the Late Victorian Novel*.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77.
- Fielding, K, J. (ed.) *The Speeches of Charles Dickens*. Oxford: Clarendon Press, 1960.
- Ford, George H. & Lauriat Lane, Jr. (eds.) *The Dickens Critics*. Ithaca: Cornell UP. 1961.
- Frierson, William C. "The English Controversy over Realism in Fiction, 1885-1895", *PMLA* XLII June 1968.

- Gissing, George. *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 London: Blackie & Son, 1903.
- _____ . Demos.
- _____ . New Grub Street.
- _____ The Nether World.
- Goode, John. "Gissing, Morris and English Socialism", *Victorian Studies*, xii. 2. Dec. 1968.
- Gryll, David. *The Paradox of Gissing*. London: Allen & Unwin, 1986.
- Howard, David et als. (eds.) *Tradition and Tolerance in Nineteenth-Century Fiction*. London: RKP, 1966.
- James, Henry. *The Critical Muse: Selected Literary Criticism*.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7.
- James, Louis. *Fiction for the Working Man 1830-1850: A Study of the Literature Produced for the Working Classes in Early Victorian Urban England*. London: Oxford UP, 1963.
- Keating, P.J. *Working Classes in Victorian Fiction*. London: RKP, 1971.
- Korg, Jacob. *George Gissing: A Critical Biography*. London: Methuen, 1963.
- Laurence Dan H. & Martin Quinn. (eds.) *Shaw on Dickens*. New York: Frederick Ungar, 1985.
- Lovell, Terry. *Consuming Fiction*. London: Verso, 1987.
- Miller, Andrew. *Novel Behind Glass: Commodity Culture and Victorian 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Poole, Adrian. *Gissing in Context*. London: Macmillan, 1975.
- Spiers, John & Pierre Coustillas. (eds.) *The Rediscovery of George*

Gissing. London: National Book League, 1971.

Stone, Harry. (ed.) *The Uncollected Writings of Charles Dickens: Household Words 1850-1859*. Bloomington: Indiana UP, 1968.

Sutherland, John. *Victorian Fiction: Writers, Publishers, Readers*. London: Macmillan, 1995.

_____. *Victorian Novelists and Publishers*. London: Athlone Press, 1976.

Tindall, Gillian. *The Born Exile: George Gissing*. London: Temple Smith, 1974.

Williams, Raymond.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3.

_____.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1.